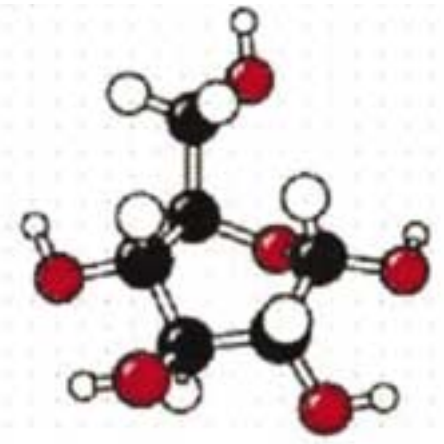
당뇨병환자가 포도당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최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노인 여성이 기력이 없어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포도당 주사를 맞아도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이는 당뇨병환자들이 으레 포도당의 섭취를 최대한 피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당뇨병 치료라 알고 당뇨병과 포도당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이지현 교수의 조언을 들어봤다.

이지현 교수는 "당뇨관리 과정 중에서 당뇨병환자들은 다양한 양상의 고혈당과 저혈당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혈당변화 요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혈당도 위험요인

저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한 양보다 모자라는 상태를 말한다. 저혈당이 생기면 처음에는 배가 아프고 온몸이 떨리며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입술 주위나 손끝이 저린 것도 한 증상이며, 심하면 머리가 아파오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당연히 포도당 주사(50%의 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맞아야 한다. 저혈당은 당뇨병 치료시 적극적으로 정상혈당까지 조절하려고 하는 경우나 오래된 당뇨병환자에게서,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므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때에 따른 고혈당

혈당관리가 되지 않아 고혈당이 되면 우리 몸의 장기에는 에너지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기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때에는 탈수 증상까지 동반되므로 이때에는 포도당 주사 대신 생리식염수 수액을 투여하여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합병증, 동반질환 주의가 필요

혈당조절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환자가 기력이 없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당뇨병환자가 합병증에 노출되고 다른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합병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다른 질환, 특히 암 검사 또한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필요시 약간의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은 괜찮다.

당뇨병이라고 해서 포도당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가 혈당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 경향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